

신당 '원샷 경선'도 불투명

鄭후보측 수용 거부...지도부 해법 못찾아 孫·李측도 "전수조사 없이는 불응" 강경

경선 파행을 겪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오는 14일 남은 8개 지역 경선을 한번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동영 후보는 이를 거부하고, 손학규·이해찬 후보는 각각 선거인단 전수조사사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경선 체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신당 경선위는 손, 이 후보가 요구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6면>

정 후보 측은 4일 "경기 중간에 틀을 바꾸는 것이 많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경선 일정 변경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지지의원 33명 명의의 성명을 통해 "경선일정 변경은 정당사상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 사례를 남긴 것"이라며 경선 잠정중단을 요구한 초·재선의원들의 당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은 "경선 일정 변경은 타당할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이 후보 측은 14일 '일괄 경선' 자체는 수용한다면서도

선거인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 광명을 방문한 손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선 일정과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현재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그동안 이뤄졌던 불법선거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법선거의 토양을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영영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후보 측 이상호 의원의 "앞으로 치러질 지역의 선거인단을 전수조사해 탈락 후보를 풀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 도용한 점에 대해 경선 제도를 잘못 운영한 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며 이를 악용한 후보는 더 나쁘다"고 정동영 후보를 비난했다.

그는 또 "14일 동시선거를 받아들이지만 사전에 잘못된 선거인단을 배제할 하지 않을 경우 경선 후에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선거인단에 대한 본인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반발과 대처 상태가 계속되자 오충일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근태·김덕규·유재건·장영달 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이날 낮 여의도에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경선 정상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광주 연상 미안마 시위집행 1980년 5·18 광주를 연상시키는 유희사태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안마 시위 집행상황이 비디오로 공개됐다. 미국 CNN방송이 지난 3일 입수, 방영한 촬영 일자 미상의 비디오는 80년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공수부대의 무차별 곤봉구타 시위 장면(작은 사진)을 판에 박아 옮긴 듯 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읍·면·동 도시계획 수립 "주민 직접 참여"

읍, 면, 동 단위의 소규모로 도시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일부 이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만들기계획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 鄭캠프 '명의도용' 연루 조사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를 상대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캠프의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23~24일 아를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과 함께 서울 송인동과 창신동의 PC방 2곳에서 노 대통령 등 523명의 명의를 도용해 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건자기록 위작 등)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 3일 발자진출석해 체포됐다.

경찰은 정 후보 캠프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캠프 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오늘따라 더욱 초라해지는 사람

여수 SOC 건설비 1,107억 증액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 '탄력'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이 활기를 띠게 됐다.

전남도는 4일 2012 여수엑스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내년 사업비도 모두 9천4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7천939억원보다 1천107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SOC확충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사업 내용별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전주~광양 고속도로 사업비 3천645억원, 목포~광양 고속도로 사

업비 2천444억원, 순천~여수 전라선 철도개량 사업비 820억원 등 10개 사업에 8천946억원과 함께 새롭게 순천~여수 복선 전철화 사업에 100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건설교통부의 사업비 반영액은 5천244억원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당초 반영액보다 3천802억 원 증가로 확보한 것이다. 2008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SOC 사업비는 전남도 전체 SOC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차기 검찰총장은? ... '하마평' 무성

사시 18~19회 유력 ... '조직인정' 18회 기용설도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정 상명 검찰총장의 퇴임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하마평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정치권의 복직관단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대구지검장 시절 기업경영 혁신기법인 '6시그마'를 검찰에 최초로 도입했다. 마산 출신의 홍 고검장은 특수·

형사·공안 업무를 두루 거쳤으며 신중한 성격에 치밀한 업무처리가 돋보여 지난해 대법관과 현재 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19회에는 임채진(55) 법무연수원장과 안영욱(52) 서울중앙지검장, 정진호(53) 법무부 차관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박상길(54) 부산고검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차기 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18~19회 인사들에 대해 최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신씨에게 건넨 돈 2천만원 추궁

검찰 박문순 관장 조사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 아저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4일 신씨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을 소환해 박 관장이 신씨에게 건넨 2천만원의 성격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박 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김석민 전 쌍용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변 전 신씨에게 광화문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미술관 공금 2억4천만원을 회계 조작으로 빼돌려 상납하는 대가로 보증금 2천만원과 1천300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박 관장은 2천만 원은 잔 적이 없고 목걸이는 대가 없는 선물이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시점이 올해 1월이고 김 전 회장의 사면 시기는 2월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고비를 주고 받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받은 정확한 경위를 깨닫는 한편 김 전 쌍용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변 전 실장간의 관련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관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과거 수습여원의 출처를 밝히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 조성 경위에 위법성이 드러나면 별건으로 전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관장을 상대로 미술관 공금 횡령, 조형물 설치 리베이트 수수, 과거 자금 조성, 신씨 오피스텔 보증금 대납 경위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光州잡수안내

구인, 영업, 모임, 모집
사실금융, 매입,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우체국: 617-01-108334
◆매일(금주)광주일보사

☎(062)220-0524
☎직통: (062)227-9600
☎FAX: 227-9500

알림

윤민석 전 (주)한양나비클럽 회장
최옥주 전 (주)한양나비클럽 임원이사

상기와 인물은 현재 (주)한양나비클럽과 관련 하여 아무런 지위도 (주)한양나비클럽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을 알린다. 향후 상기의 인물들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한양나비클럽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주)한양나비클럽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신55번지
전화: 061-324-6261
팩스: 061-324-6262
(주)한양나비클럽 대표이사 김 현 재

자본감소 및 주권재출 공고

본 회사는 2007년 10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576,920,000원 중 금276,920,000원을 감소하여 3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57,692주 중 27,692주 주주들의 동의 없이 소유주사비로 무상 소각하고 자본금을 3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57,692주 중 30,000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할, 주주는 재권을 제출하여 주식이 바뀝니다.

2007년 10월 5일
삼운건설 주식회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300-4 해남우체국 1103호
대표이사 박길배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원고자 또는 원고자에게는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어야 하며, 원고자에게는 공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관부담으로 간부하에 존속하며, 당사 임의 개장해당분묘는 제외합니다.

- 공고기간: 2007. 9. 6 ~ 2007. 12. 4 (장묘법 제10조 제1항)
- 개장사항: 소규모묘지실 신장묘지
- 개장장소: 남평면
- 묘지소재지: 함평군 남평면 남평리 121-1
- 묘지소재지: 함평군 남평면 남평리 120-2 (영향권)
- 개장사항: 개장 후 유골 사당내에 신묘는 법원판결이나 신묘 관련하여 원상 복구가 필요한 분묘는 이 공고로 알려지지 않음

주소: 함평군 남평면 남평리 873
상명: 사비(주)한양나비클럽 (062-227-9600)
상명: 사비(주)한양나비클럽 (062-227-9600)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동로 873 사비(주)한양나비클럽 (062-227-9600)
2007년 10월 5일
위 공고로: 함평군 남평면 남평리 873 사비(주)한양나비클럽

파산선고·파산재정결정 및 면책심판기입공고

사건 2006852804 파산선고 (2006852804) 면책 신청인(채무자) 김경환(630409-.....) 주소 전남 보성군 조동면 동촌리 317-3 주소 전남 보성군 조동면 동촌리 317-3

- 결정일자: 2007. 10. 04. 10:00
- 파산선고·파산재정결정 주문 채무자를 파산선고 한다. 이 사건 파산선고·파산재정결정에 이 사건 파산선고에 따른다.
- 유예의 요지 채무자가 지급능력상실에 있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 면책심판기입 심판일자: 2007. 10. 29. 14:00 심판대상: 2003호 파산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현석

건설입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입주내용

- 건설입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 (분할 합병)
- 건설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잔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사
TEL: (02)587-7400
FAX: (02)587-8855

호남지사
TEL: (062) 226-6300
FAX: (062) 943-2244

금매

국도변

- ◆ 나주·남평역 인근
- ◆ 남향투자 최적지
- ◆ 22,353㎡ (7,000평)
- ◆ 주민직접 (평당3만)

016-249-8656

고시원 매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입니다.

- 5층건물 매대가 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가 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가 8억5천 (용자 4억 포함)
- 7층건물 매대가 9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 4층·6층건물 매대가 20억 (용자 6억7천 포함)

◆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오

H.P: 011-604-5239

임동유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토지분수유지의 신청방법)제1항 4호에 의거 아래의 사람을 행정자로 공고하고 행정자로 확정될 시에는 토지분수유지수에 제외되거나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은 본 추진위의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병석 광주광역시 동구 중동로 5가 100
김규민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
한신근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
박병목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62
김수만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67
최양우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8
정인호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8-118
정진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8-9
한산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8-44
김병석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7
이성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812
김금자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
이경수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8-16

2007년 10월 5일
연락처: TEL 062-521-3082~4
FAX 062-521-3085

임동유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문철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www.nplo.co.kr

전액할부판매 내수/수출차량매입 위탁판매

- 승용/수입차/상용/특장차/신설차
- 전차종 할부판매
- 이전/비/등록비/보험료포함 전액할부 (돈없이 차량구입)
- 4~11월 10개월대출이자 월 100만원당 4500~7500원
- 무상A/S 5년/5,000KM/1년/20,000KM
- 당일출고/최상의 서비스(엔진오일/및 선오일/세탁/세차)품목제공
- 전국최대규모 매장 보유/국내외차량 대량보유
- 중·대형승용/수입차/RV/승합/경차
- 1톤~25톤화물차/덤프/크레인/포크레인
- 1톤개인용달/4.5톤개별화물 등 급
- 고령차/신차 무조건매입
- 당일매입/이전/현금 즉시 지급
- 모든차량 구입시 이전/말소가능
- 고객님의 차량금액을 소비자 가격으로 받기를 원하실때
- 위탁을 할 경우 고객님의 받고자 하는 가격에 10%를 계약금으로 지급
- 계약기간은 1개월이내 만일 안팔리면 계약서 작성금액 전액지급
- 만일 차량금액 전액지급안하면 계약금 10%포기/차량반환
- 위탁차량은 팔리면 고객님의 차량 금액을 지불하고 이전서류발부

(주)나플레오무역상사 (유)동해모터스 대표전화 062-651-6006, 010-8427-9997